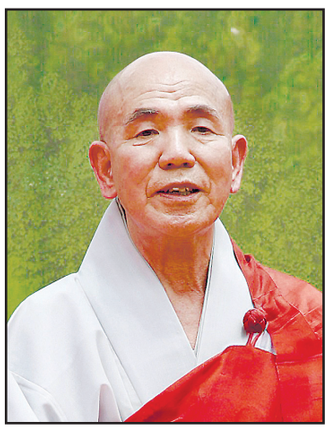
‘원로 선승’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 圓寂

법랍 59세, 세납 81세
봉암사서 영결식 엄수

신성민 · 윤호섭 기자



20대 출가 후 선풍진작 매진
총림 선원장 · 수좌회 대표로
입적날까지 후학들에게 모범
文 대통령 “스님 가르침 기억”

조계종을 대표하는 원로 선승인 문경 봉암사 수좌 적명 대종사〈사진〉가 구랍 24일 오후 원적에 들었다. 법랍 59세, 세납 81세.

적명 스님은 대중의 간청에도 봉암사 조실을 마다하고 수좌로 정진하며 후학들의 존경을 받아온 선지식이다.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28일 오전 10시 30분 봉암사에서 전국수좌회장으로 엄수됐다. 갑작스런 스님의 입적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가의 존경받는 선승이신 적명 큰스님의 급작스러운 입적 비보를 들었다. 스님은 평생 수행에만 정진한 수좌셨다. 한국불교의 개혁을 이끈 봉암사에서 그 정신을 지키며 봉암사를 청정 수행도량으로 지켜오셨다”면서 “스님은 자리에 걸림이 없으셨다. 선원의 최고 어른인 조실로 모시려 할 때도 능력이 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마다하셨다”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2년 8월, 대선후보 경선 시절 봉암사에서 스님을 뵈었다. 스님은 ‘국민의 한 가지 바람은 10년 후, 100년 후에도 그리워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가져보는 것’ 이라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셨다”며 “스님 가르침대로 늘 간절한 마음 갖겠다. 스님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적명 스님은 1939년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제주 오현고교를 졸업하고 철학적 고뇌 끝에 출가를 결심했다. 선지식을 찾아 뭍으로 나와 나주 다보사 우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과 1966년 해인사 자운 스님에게 사미계와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26세에 토굴에서 우연히 보조국사의 〈절요〉를 읽다가 “수행을 하려면 모름지기 활구참선을 해야 한다”는 구절을 보고, 무자화두를 들기 시작했다. 1967년 해인총림이 개설되고 50대 방장 성철 스님이 방장에 추대돼 선풍이 일기 시작하자 28세에 해인사에 가서 가행정진한 이래 평생 선방을 떠나지 않았다. 당대 선지식인 전강 · 경봉 · 성철 · 서옹 · 향곡 · 구산 스님 문하에서 법을 묻고 정진했으며, 능엄경 42변마장의 내용이 낱낱이 사실임을 체험하고 화두선에 더욱 매진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선원장, 고불총림 백양사 선원장, 수도암 선원장, 은해사 기기암 선원장 등을 역임하고 전국수좌회 공동대표를 맡았다. 2009년 정월 구산선문 중 하나이자 봉암사 결사의 청정도량인 봉암사에 주석, 대중의 추대로 수좌 소임을 맡은 후 입적하는 날까지 대중과 함께 정진, 운력, 공양하는 등 후학에게 수행자의 본분을 보였다. 2018년에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중사 법계를 품수했다.

간화선 선풍을 진작하고자 외호대중의 도움과 문경시 협의 아래 국제선센터를 발원해 2015년 선원수좌회와 공동으로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추진했다. 또한 평생 청빈한 삶으로 돌보는 이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수행자를 위해 수좌복지회를 만들 것을 제의해 성사시켰으며, 봉암사 원로 수좌를 모시기 위해 원로선원을 건립했다.

적명 스님은 오로지 본분사에만 매진하고 선방 밖의 일은 거의 돌아보지 않았다. 간혹 법을 묻는 이가 찾아오면 다양한 비유와 유창한 설법으로 대중을 감통케 하고, 중도교의가 불교의 근본임을 설파하며 화두선이 중도를 바로 체험하고 깨닫는 지름길임을 설했다. 설사 화두 타파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상 생활을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는 공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A1면에 이어〉

불교 · 신도단체 창립 기념

만해 스님이 창립한 조선불교청년회가 모체인 대한불교청년회는 6월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 대한불교청년회는 100년 전 3 · 1운동 이후 31개 본산 대표자와 중앙학림 학생들이 모여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 조국광복과 독립을 이룩하자’ 는 만해 스님의 뜻을 이어 각황사서 창립됐다. 현재 대불청은 100주년기념사업회를 결성한 상태로 ‘만해센터 건립을 위한 100만불사 500나한 모연’ , 〈불청100년사〉 편찬, 만해유적 바로 세우기 사업, 만해유적 발굴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 국제사업으로 동북아 불교평화 우호세력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 공무원 불자들의 결집체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도 10월 7일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공불련은 현재 해외성지순례와 합동수계법회, 정기법회 등으로 공무원 신심 증장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20주년 행사 기획단계다. 또한 조계종 포교사단은 3월 12일 창단 20주년을 맞는다. 4700여 포교사들이 전법에 매진하고 있다. 제11대 포교사단 선거서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취임 공약으로 광화문에서의 창단 기념 포교전진대회 개최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TF팀을 구성해 기념사업을 준비 중이다.

대형 국제학술대회 개최 잇달아

2020년 불교학계는 대형 국제학술행사가 잇달아 열리는 호재를 맞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017년 서울대가 한국 최초로 유치한 세계불교학회(IABS) 학술대회다.

1976년 창립된 세계불교학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의 주요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불교학 학술단체로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열린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타이완, 태국에서 열렸으며,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8월 16~21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는 500여 명에 달하는 국내외 불교학자들이 참석하며, 전통 불교학(문헌학)부터 명상 · 사회문제 · 윤리학까지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발표된다.

참여하는 주요 해외 학자는 폴 해리슨(스탠포드), 재클린 스톤(프린스턴), 제임스 롭슨 · 김진아(하버드), 아키라 사이토(도쿄대), 하루나가 아이작슨(함부르크대), 로타르 레데로제(하이델베르크대) 등이다.

조은수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년 사이 한국불교학은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높아진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국대가 주최하는 국제불교인식논리학회 제6회 학술대회도 주목할 만하다. 8월 24~28일 부산 신라스테이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세계 20개국 50여 명의 발표자를 비롯해 150여 명의 국내외 학자가 참여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존재론, 인식론, 논리학을 중심으로 대소승 학파의 교설과 브라만교, 자이나교 등 인접 종교철학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학회는 한국의 불교학 연구를 세계에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불교 연구자들과 세계적인 학자들 사이의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원효, 원측 등과 같은 한국불교사상가들을 국제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헌으로 존경받는 대학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힘차게 정진하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윤성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 동국대학교 의료원장 조성민


서울캠퍼스 : 인류애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경주캠퍼스 : 세상을 움직이는 참사람 양성


의료원 : 자비인술과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태고종 “낮은 자세로 종단 화합”

제27대 총무원, 종무행정 정상화 담화문 발표

종단 분열 사태, 대중에 참회
정상화 따라 종단 재정비 천명



최근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합의를 통해 종단 종무행정 정상화를 꾀한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사진〉이 “낮은 자세로 종단 안정과 화합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약 1년간 계속된 태고종단의 내홍 불식을 알리고, 종단 재정비를 통해 위상 강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구랍 23일 ‘불자 및 종도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을 발표하고, 그간의 종단 내홍에 대한 참회의 말을 전했다. 호명 스님은 “지난 한 해 본의 아닌 종단 사태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화합과 화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승가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또한 깊이 참회하고 반성한다”며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깊은 염려와 성원 덕분에 큰 불상사 없이 평화롭게 분쟁이 해결되고 총무원사를 회복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다.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호명 스님은 이어 “부처님 법과 종단의 종헌종법을 무시한 한 사람의 독선과 독단이 집단을 얼마나 망치는지, 승가에서 화합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전임 집행부를 비판한 뒤 “제27대 총무원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종도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낮은 자세로 종단 안정과 화합을 꾀하겠다”고 다짐했다.

호명 스님은 대내외적으로 떨어진 종단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 종도가 함께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은 현재 한국불교 주요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의전순서상 5번째에 위치한다. 과거 조계종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2015년 폭력 분규사태 이후 종단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자격정지와 의전순서 조정을 겪었다.

호명 스님은 “지금 우리 종단 재정은 물론 종단 형편은 말이 아니다. 전임 집행부가 모든 것을 폐기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복구하고 시작해야 한다”면서 “불자 여러분과 종도 여러분의 협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호명 스님은 끝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있다. 평범한 말 같지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말”이라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총무원사를 회복하게 해준 종도들의 힘을 믿는다. 태고종단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큰 힘과 원력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경주캠 총장 후보 3명 선출

김흥회 · 류완하 · 이영경 교수, 1월초 이사회서 최종 결정

김흥회 행정 · 경찰공공학부 교수, 류완하 미술학과 교수,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가나다 순)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최종후보자로 선출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원명, 경주총추위)는 구랍 27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최종 후보대상자’ 3명을 선출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경주총추위는 이날 경주캠퍼스총장후보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김흥회, 류완하, 이영경 교수를 최종 선출했다. 경주총추위는 구랍 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원자 확정, 토론회, 소견발표 등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했다.


김흥회


류완하


이영경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오는 1월 초 열리는 법인 이사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